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6년 7월 1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50년 음력 6월 6일 제80호

"중생들의 업장소멸과 자비실현"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방생법회



지난해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열린 부산경남교구 방생법회에서 교도들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법회를 올리고 있다.

총지종은 하반기 49일 불공을 7월 15일 회향함으로써 그 공덕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방생법회를 오는 7월 17일, 18일 전국사원에서 각 교구별로 봉행할 예정이다.

우승 통리원장은 방생법회에 즈음하여 "방생법회는 불교의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그 가운데 살생을 금지한 불살생계를 중시한 계율이며, 방생은 불살생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길이며, 살생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게 된 생명을 구해냄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생은 불자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인 것입니다. 경전에 '무릇 살생을 경계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으뜸이요, 죽어가는 목숨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함이다.

모든 무리가 삶을 즐겨하지 않음이 없고 꼬물거리는 미물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니 어찌 슬픈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요? 또 피를 가진 동물은 반드시 지각이 있으며 이 지각은 곧 불성이므로 어찌 오늘의 천한 바가 다른 날에 존귀했었다고 할 수 없겠는가? 그러므로 경계에서는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없고 평등한 본성 가운데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건만 중생들은 망녕된 생각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능히 돌이킬 줄 모르니 슬프도다!' 는 구절을 인용하며 방생이란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발현하여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고 살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육도 윤회로부터 해탈케 하는 것임을 알고 많은 불자들이 방생법회에 참석하여 선망부모의 해탈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증득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부산경남교구는 7월 17일 전남 순천 주암댐에서, 대구경북교구는 7월 17일 충북 제천 의림지, 서울경인교구는 7월 18일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일선사원 현황파악, 교화활성화방안 마련"

일선사원 사무지도 완료

총지종은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선도원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법경 사무국장이 부산경남 교구, 대구경북 교구 일선사원, 지난 4월 서울경인, 충청전라교구 일선사원 사무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총지종 일선 사원에 대한 사무지도를 마무리하였다.

종단에서 일선사원 사무지도를 시행한 이유는 일선사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선사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사무지도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이며, 총지종은 모든 행정과 재무구조가 중앙집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사원의 운영과 재정상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문서양식이나 행정서류의 정비를 통해 일선사원 행정의 원활함을 추구하고, 일선사원의 주교와 신도들의 면담을 통해 사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사무지도를 담당한 총무부장(선도원)은 "통리원에서는 그동안 사무지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포교방향을 설정하고, 일선사원이 발전해야 종단이 발전함을 인식하고 일선사원의 교화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통배워 미래를 열자"

총지종 여름 학생 수련법회



지난해 충남 대천에서 열린 여름학생 수련법회에서 어린이들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총지종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영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 학생 수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여름학생 수련법회는 전국 각 사원 어린이,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반, 청소년들에게 총지종 수행법을 포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학생수련법회는 경북 영주의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야간산행과 문화탐방, 예절과 매너, 신나는 물놀이, 단체게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배양하고, 산행체험을 통해 숲속의 자연생태 등을 관찰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총지종의 수행법을 체득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수련법회를 계기로 수련법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수련법회 후 일관성 있는 포교 프로그램의 개발, 수련법회 외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포교를 위한 자성학교나 청소년 법회, 청년 법회의 필요성, 정기적인 전국 학생회나 청년회 단체들의 체육대회, 학생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 포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흥미롭고 다양한 포교방법의 선택으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총지종에 입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지캠페인

실천하는 수행자

어느 날 파사익 왕은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왕궁으로 오기를 청했다. 부처님은 제자 판타카에게 발우를 들리시고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여 그의 위신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때 왕은 몹시 놀랐다. 추다판타카는 형 마하판타카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3년 동안 공부하여도 부처님 설법 한 마디 외우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제자이었다. 파사익 왕은 여러 뛰어난 제자들을 제쳐두고 우둔한 판트카에게 부처님의 발우를 들리게 한 연유를 물었다.

그때 부처님은 여러 대중에게 설하셨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여 많은 것을 깨우쳤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깨우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록 우둔하여 한가지 밖에 깨우치지 못한 판타카이지만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판타카야 말로 진정한 사문이다."

당(唐)대 최고의 문장가요 정치가였던 백락천은 도림(道林)선사와 만남에서 큰 가르침을 청하였으나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단순한 가르침에 대단히 실망한다. 법력이 높은 선사이니 심오하고 큰 가르침을 기대했던 그는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오." 라고 되묻는다. 도림선사는 다시 웃음 띤 얼굴로 말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네"

두 이야기는 배우고 깨달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그 실천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수행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팔만대장경 속의 내용을 모두 읽고 깨우쳐도 그 내용대로 행(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아만(我慢)으로만 남아 스스로에게 번뇌(煩惱)만 일으키는 허망된 것일 뿐이다.

불제자로서, 진언행자로서 깨우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 추다판타카와 도림선사의 일화를 깊이 생각해보자.

이 달의 종조법설

인(因)지어서 과(果)받음은 우주만유 법칙이라. 좋은 인을 지은 이는 좋은 과를 받게 된다.
전생 인을 알려하면, 금세 받는 그것이요, 내생 과를 알려하면 금세짓는 그것이다.
모든 법은 인연(因緣)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만약 인연 없게 되면 모든 법도 없느니라.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법회

방생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의 여건을 제거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중생의 해탈과 더불어 소외받는 이웃을 도와주는 자리이타행으로 총지종 방생법회에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하반기 49일불공의 회향공덕으로 부처님의 가지력을 입고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남교구
◎ 일 시 : 총기35년(2006년) 7월 17일
◎ 장 소 : 전남 순천 주암댐

◆ 대구경북교구
◎ 일 시 : 총기35년(2006년) 7월 17일
◎ 장 소 : 충북 제천 의림지

◆ 서울경인교구
◎ 일 시 : 총기35년(2006년) 7월 18일
◎ 장 소 : 충북 제천 의림지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 설

새로운 장묘시설인 수림장에 관심을 가져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사는 생, 노, 병, 사의 윤회를 계속하며 살아간다.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이요,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조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윤회의 굴레속에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상의 업이 나에게 유전되고, 나의 업은 후손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죽으면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명복을 빌기 위한 의식을 행한다. 그러나 장묘문화는 각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의식과 문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그동안 땅속에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火葬)과 납골(納骨), 산골(散骨), 수림장(樹林葬)"으로 장례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매해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토지가 묘지로 쓰이고 있으며 조만간 '무덤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불교 장례문화인 화장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장묘시설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1971년 7%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2003년 46%를 넘어섰고, 최근 조사에서는 사후 화장을 원하는 비율이 70%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매장' 중심 장례 문화가 유해를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모시는 '납골'에 수백 년간 지켜온 독보적 지위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납골 장례문화도 최근 구시대적 방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납골당이 조성되어 발생하는 환경 파괴, 호화 납골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장묘문화가 수림장(樹林葬)이다. 수림장은 화장한 유골을 특정 나무 등 기념물 아래 땅에 묻는 형태이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친환경으로 화재와 수해 등 위험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미래의 장례 형태인 수림장 도입을 위해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수림장제도 도입을 위해 '장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산골 장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회부하여 내년 4월경 통과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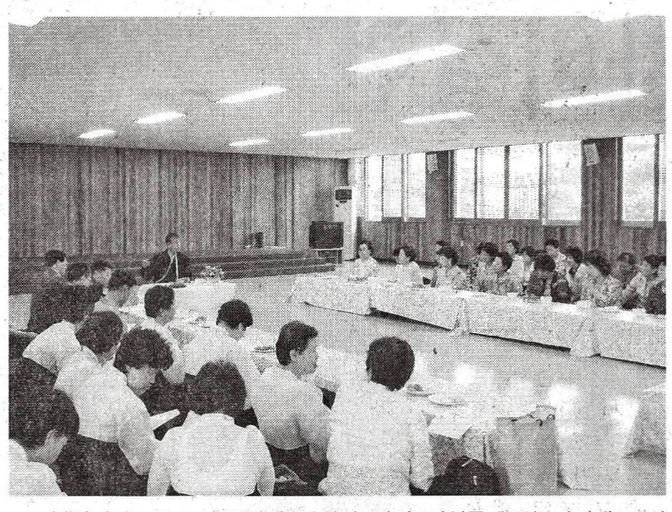
수림장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4년 9월 타계한 원로 임학자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수림장으로 치러지면서 부터다. 수림장은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일반 산골과 달리 장례 이후 추모 제사가 가능해 유족의 거부감이 적은데다 납골당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자연훼손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 영천 은해사는 5만평 규모의 소나무 군락지를 수림장터로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있으며 충남 일불사와 경기도 고양 장안사, 용주사 등이 추모공원을 조성해 수림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불교 사찰들도 수림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스위스, 일본, 영국등도 수림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림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볼 때 종단에서는 수림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립에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영가천도를 위한 시설을 병행하여 자손들이 총지종의 장묘시설에 부모들을 봉안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은 부모들이 봉안되어 있는 총지종에 애종심을 가지게 되고 가족제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화합된 모습, 종단발전"

부산경남교구 교구회의 및 지회 회의



◇부산경남교구 스승들과 부산경남 지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구의 현황을 조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총지종 부산경남교구는 지난 6월 22일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교구 스승과 부산경남지회 간부, 부산경남교구 각 사원 신정회 간부들이 한 곳에 모여 종단과 교구의 현황을 조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번 모임은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함으로써 그 공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방생법회의 날짜와 방법, 장소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교환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부산경남교구는 매년 6월과 12월 부산경남지역 스승과 각 사원 간부들로 구성된 지회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구내의 교화활성화와 수행방법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 날도 총지종 노보살들을 위한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한 안건으로 부산경남지회에서 방안을 제시하며, 요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올 해 방생법회의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7월 17일로 정하고, 장소는 순천 주암댐으로 정하였으며, 방생법회 준비에 대한 사전답사 및 프로그램은 교구에 위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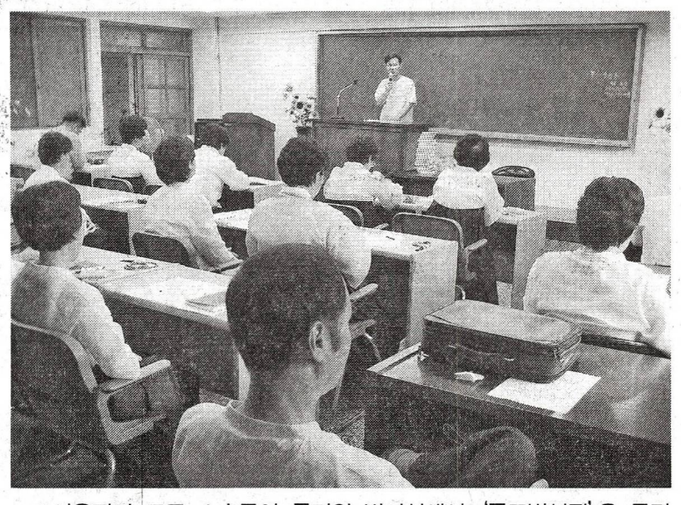
이 날 모임에 참석한 교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상호간에 의견을 듣고 교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무엇보다도 서로간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서로 서로 힘과 생각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화합된 모습으로 노력하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 항상 나의 생각이 옳다는 사고를 버리고, 나를 비우며 생활하다 보면 일이 저절로 풀리기 마련이다. 부산경남교구 스승과 지회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 총지종이 교화가 활성화 되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방

- ☞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불사를 7월 15일 전국사원에서 봉행합니다.
- ☞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방생법회를 부산경남교구 7월 17일 순천 주암댐, 대구경북교구 7월 17일 제천 의림지, 서울경인교구 7월 18일 제천 의림지에서 봉행됩니다.
- ☞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를 7월 24일 ~ 26일 경북 영주 청소년수련관에서 봉행합니다.

"스승들의 학구열 고조"

서울경인교구 스승들 자발적 교리공부 모임



◇서울경인 교구 스승들이 통리원 반야실에서 '종조법설집'을 독경하고 연구하며 교리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서울경인 스승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서울 통리원 반야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한자리에 모여 중앙교육원 원장 직무대리인 화령 정사와 함께 '종조법설집'을 독경하고 해석한다.

이 번 모임은 종단의 공식적인 교육 일정이 아닌 스승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모임을 가짐으로써 교리공부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모임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자발적인 모임이기에 학구열은 고조되어 있으며, 교리공부에 참석하는 스승들의 태도도 남다르다.

모임에 참석한 한 스승은 "그동안 우리 종단의 주 경전인 종조법설집과 불교총전을 자주 읽어 왔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스승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람있다."며 "스승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 큰 공덕이 있으며 특히 스승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짐으로서 종조법설집뿐만 아니라 불교교리 전반에 대한 지식을 상호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고

방생법회의 진정한 의미

오는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면 전국의 모든 사원들은 하반기 49일불공 회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방생법회에 즈음하여 방생법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생법회란 불교의 생명 존엄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중생을 만나거든 보리심을 발하라"는 보살계를 받은 스님들과 신남신녀(信男信女)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죽게 된 생명을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고, 삼귀의계를 일러주며, 십이인연법을 설한 후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법회이다.

방생이란 불교의 오계 가운데 첫째로 삼는 '살아 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를 단지 죽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보살행으로 발전한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방생 법회에 동참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보살행을 실천하더라도 결과가 선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방생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발현하여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비를 베풀어 방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생명을 아끼고 살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육도 윤회로부터 해탈케 하는 여러 방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방생은 본래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생명을 해방시켜 주는 의미를 가진 불교적 의식이다. 하지만 요즘은 방생 의식은 이러한 본래의 뜻을 살리지 못한 채 강물에 물고기를 풀어주고 복덕을 비는 의식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방생 장소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곳에 적합하지 않은 어종들을 마구 풀어 놓음으로써 수중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수질은 3급수인데 1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방생하면 그 물고기는 곧 죽게 되며, 공격성 외래어종들을 하천에 방생하면 먹이사슬의 파괴로 토종어류들의 씨가 말라 버릴 우려도 있다. 또한 대규모로 방생 법회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나 기타 오염 물질들이 하천이나 강에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시키기도 한다.

야생 동물, 조류의 방생 어류 방생만이 아닌 야생동물이나 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방생 법회를 생각볼 만 하다. 특히 눈이 쌓인 겨울철 산에는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때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방생법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 방생장소는 깨끗하게 방생 법회시 일회용 도시락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에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생태계 보존 운동으로 확대한다.

무엇보다도 방생법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되살려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6년 5월 29일부터 2006년 6월 22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6. 22	5,000	기로원	자선화	6. 19	10,000	밀인사	정정희	6. 1	5,000
개천사	손 식	6. 5	30,000	단향사	행원심	6. 7	20,000	백월사	박삼순	6. 19	10,000
개천사	이희권	5. 30	10,000	덕화사	김상열	6. 19	20,000	백월사	이갑진	5. 30	10,000
관성사	무명씨	6. 8	10,000	만보사	배정임	6. 13	10,000	백월사	한완규	6. 21	10,000
관성사	이혜원	5. 30	5,000	만보사	승효제	5. 30	10,000	법천사	임선순	6. 19	10,000
관성사	황성녀	6. 5	10,000	만보사	지 성	5. 30	10,000	삼밀사	김주희	6. 21	20,000
기로원	대 관	6. 19	10,000	밀인사	무명씨	5. 30	10,000	삼밀사	이은옥	6. 19	20,000
기로원	대자행	6. 19	10,000	밀인사	신대식	6. 21	5,000	선립사	대 덕	6. 22	10,000
기로원	법장화	6. 19	10,000	밀인사	신동의	6. 21	5,000	선립사	정복지	6. 20	10,000
기로원	불멸심	6. 19	10,000	밀인사	신동희	6. 21	5,000	성화사	우담바라	6. 20	100,000
기로원	상지화	6. 19	10,000	밀인사	이재호	6. 5	10,000	수인사	김봉기	5. 29	10,000
기로원	수증원	6. 19	10,000	밀인사	이혜성	6. 21	5,000	실보사	송희준	6. 16	10,000
실보사	안경숙	5. 30	5,000	정각사	박훈휘	6. 20	10,000				
실보사	안경숙	6. 21	5,000	정각사	신옥필	5. 30	5,000				
실보사	이달우	5. 29	10,000	정심사	박옥란	6. 21	20,000				
실보사	이순옥	6. 20	5,000	정심사	오윤보	6. 16	5,000				
실지사	박병선	5. 30	5,000	총지사	이인성	6. 21	30,000				
실지사	손정우	5. 29	5,000	통리원	지정	6. 19	20,000				
실지사	손현경	5. 29	5,000	화음사	강순란	6. 7	5,000				
실지사	정경자	5. 29	5,000	흥국사	강한빛	5. 29	20,000				
정각사	구정희	6. 16	20,000		이화수	6. 16	5,000				
정각사	김문수	6. 5	10,000		진관사	5. 29	10,000				
정각사	김영자	6.15	20,000								
정각사	김점남	5. 30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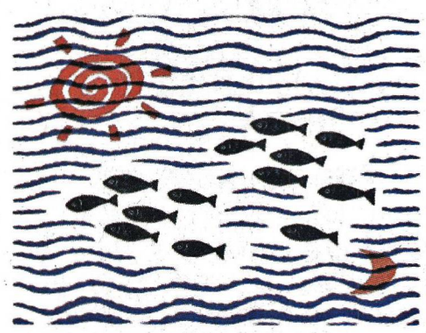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보다 쉬운 일



물고기를 살생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
살생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
온 대지를 가죽으로 덮는 것 보다는
내 발을 가죽으로 감싸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미운 사람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을
없애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 달라이라마

부모를 잘 모셔야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숫타니파타』 중에서

달 밤



양관선사의 오두막에 밤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먼길을 왔는데 그냥 가서 되겠는가?
옷을 벗어줄테니 가져가시게."
밤손님은 옷을 받아들고
뒤도 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달빛이 뜨락에 눈부셨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선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름다운 저 달빛까지도 줄 수 있었더라면"

- 맹란자(시인)

이달의 명상

자기 자신은 즐겁고 풍족하게 살면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행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어 버린 뒤입니다.

눈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열 손가락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 가며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행복 비타민 중에서〉





제16회 불교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

"전통배워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예절의 고향 경북 영주에서 예절과 매너, 문화탐방, 신나는 물놀이, 단체게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배양하고, 산행체험을 통해 숲속의 자연생태 등을 관찰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에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35년(2006년) 7월 24일 ~ 26일
◆ 장 소 : 경북 영주 청소년 수련관
◆ 대 상 :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수영복, 수건 지참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전통사찰 문화탐방 ③

천년의 향기가 흐르는 용문산 용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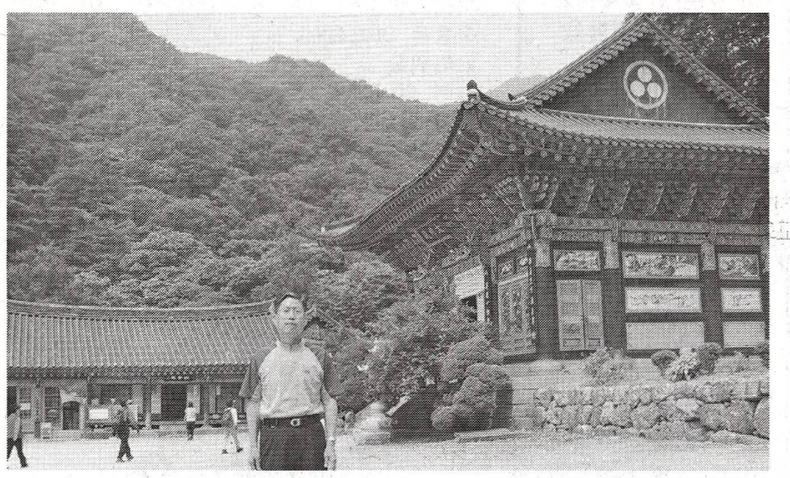
말없이 천년을 지키는 은행나무와 용이 등천하는 사찰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나무에게도 업(業)이 있을 것이다. 그 업에 따라 나무도 종류별로 저마다 다양한 생태를 지닌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생사가 다른 것도 그 업 때문이 아닐런지..."

총지종보 편집위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세속의 고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잊은 채 고요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양평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녹색의 신록 물결이 출렁이는 나무들과 드넓은 북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차창가로 불어오는 향긋한 자연의 향기를 음미하며 달려가는 차량들은 시멘트의 딱딱한 빌딩 숲 속에서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탈출한 듯 너울너울 춤을 추며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리고 있다.

높고 높은 산등성이를 지나 신록의 물감을 맘껏 머금은 채 바라보는 나무 잎사귀들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결에 너풀너풀 움직이며, 향긋한 춤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산등성이를 타고 몇 분을 달려가니 우람하고 장엄한 용마산이 보인다.

신라고찰 용문사를 보듬고 있는 용문산은 해발 1,157m로, 몸집이 커서



양평, 가평, 홍천이 모두 이 산에 기대어 있다. 장군봉(1067m), 문례봉(992m), 백운봉(940m), 도일봉(841m), 중원산(799m) 등이 모두 용문의 아우들이다.

용마산 입구에 도착하여 입장료를 들고 들어서니 용마산 관광지라는 푯말이 보이고, 주변에는 마치 큰 궁궐을 짓는 듯 기왓장 지붕에 우람한 가람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현장에는 농산물 박물관 공사 현장이라는 현수막이 나풀대고 있어 이곳에 박물관을 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사현장 위로는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말과 야간에는 이곳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

박물관 공사현장을 지나 몇 발자국



걸어가니 뽕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 뽕나무에는 일명 '오디'라는 검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오랜만에 뽕나무를 바라보니 어릴 적 누에를 키우기 위해 뽕나무 잎사귀를 따던 일, 뽕나무 열매를 너무 많이 먹어 손과 입, 옷을 마치 붉은 물감으로 색칠한 것처럼 온 통 빨갛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서로 서로 웃던 일 등 지난 날의 추억들을 정답게 이야기 하며 용문사 일주문을 향한다.

일주문을 들어서니 마치 쉘부르의 우산속 처럼 아름드리 나무들이 길가 양옆으로 쭉 늘어서서 그늘을 만들어 준다.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오솔길 따라 길게 펼쳐진 개울물이다.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마치 아름다운 합창곡의 교향곡을 부르는 듯하다. 맑은 개울물을 바라보다 매혹이라도 당한 듯 모두는 개울쪽을 향하여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신발을 벗고 개울물속에 발을 담근다. 발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온 몸으로 퍼져 짜릿한 느낌이 들게 한다. 실록의 나무들로 만들어진 집과 개울물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이 곳이 바로 극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용문사 경내에 다다르니 길 손을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은 은행나무이다. 의상대사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는 은행나무는 높이가 62m이다. 이 은행나무의 별호는 '화두목'이다. '불을 먹는 나무'라는 의미이다. 화재를 당했을 때 다른 나무들에 비해 소생율이 높은 것은 왕성한 맹아율 때문이다.

용문사 1000여년 역사 동안 여러 차례의 화재가 있었으나, 이 나무만은 온전했다고 한다. 은행나무 부근에 있던 천왕문이 소실된 뒤부터는 이 나무를 천왕목(天王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설화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를 자르기 위해 도끼로 나무를 내리 쳤더니 나무에서 새빨간 핏물이 흘렀으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소리를 내어 그 변고를 알렸다고 할 정도로 신령스런 나무로 인식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 추정수령 1100년, 줄기 아랫부분에 큰 혹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나무 중 가장 키가 크며, 우람하고 당당한 위엄을 풍기는 대표적인 명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무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세자였던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고도 하고, 또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義湘大師)가 그의 지팡이를 꽂은 것이라고도 한다. 조선 세종(世宗) 때는 정삼품(正三品)보다 더 높은 당상직첩(堂上職牒)을 하사받은 명목(名木)이다.

천년의 세월을 말없이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 맞은 편의 계단을 올라서니 커다란 대웅전이 정면으로 보이고 양옆으로 삼성각과 지장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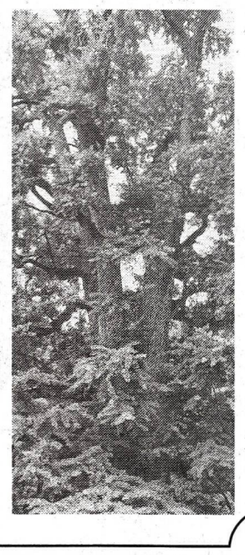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 대경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일설에는 경순왕(927~935재위)이 친히 행차하여 창사 하였다고 한다. 고려 우왕 4년(1378) 지천대사가 개풍 경천사의 대장경을 옮겨 봉안하였고 조선 태조 4년(1395) 조안화상이 중창하였다.

세종 29년(1447) 수양대군이 모후 소헌왕후 심씨를 위하여 보전을 다시 지었고 세조 3년(1457) 왕명으로 중수하였다.

성종 11년(1480) 처안스님이 중수한 뒤 고종 30년(1893) 봉성 대사가 중창하였으나, 순종원년(1907)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자 일본군이 불태웠다. 1909년 취운스님이 큰방을 중건한 뒤 1938년 태욱스님이 대웅전, 어실각, 노전, 칠성각, 기념각, 요사등을 중건하였으며, 1982년부터 지금까지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관음전, 요사채, 일주문, 다원 등을 새로 중건하고 불사리탑, 미륵불을 조성하였다.

경내에는 권근이 지은 보물 제531호 정지국사부도 및 비와 지방유형문화재 제172호 금동관음보살좌상, 천연기념물 제 30호 은행나무가 있다.

참회와 용서의 마음으로 용문사 경내를 거닐다 보니 세상의 모든 번민과 고뇌가 사라지는 것 같다. 만남 후에 반드시 이별한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의 구절을 떠올리며 용문사를 나선다.



총지동의보감

치매의 예방



김장규 원장

몇 달전에도 치매의 예방이란 주제로 한 번 글을 쓴 것도 같은데, 근래 치매예방에 대한 상식적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칼럼으로 올립니다.

〈치매의 예방 - 일상생활 수칙〉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예방하거나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치매의 예방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에게서 치매 예방의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알쯔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예방 방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일반적인 치매의 예방** : 일반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되고 있다.

1)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알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걷는 것도 좋고 에어로빅을 하고 수영을 하여도 좋으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여야 한다.

2) 취미 생활을 갖도록 한다. 특히 세밀한 손동작을 사용하는 취미가 좋다. 예를 들면 즐거운 마음으로 서예, 자수, 그림 그리기 등을 하도록 한다.

3) 두뇌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텔레비젼을 보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매일 읽으면서 두뇌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것도 좋으며 일기를 매일 매일 쓰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4)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사회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노인이 되면 여가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지 못하였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

5) 체중을 관리하여 살이 찌지 않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식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음식을 골고루 들어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도록 한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고혈압이나 심장 또는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롭다.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피하고 열량 섭취를 제한하여야 한다.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피하여야 한다.

6) 추운 날씨는 조심하여야 한다. 추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 뇌경색이 일어나기 쉽다.

7) 음주, 담배, 카페인 등을 삼가도록 한다. 음주는 과도할 경우 직접적으로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키거나 Wernike Korsakoff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담배는 심폐기능을 저하시키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 난청이나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데 지장을 주며 치매 환자로 의심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안경을 착용하여 정상적인 청력과 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죽비소리 애욕의 뿌리를 지혜로써 끊으라

두려워 해야 할 일 두려워 않고
두려워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릇된 소견으로 행하는 자는
날마다 악의 길로만 들어간다.

피해야 할 길은 피하지 않고
행해야만 할 길을 행하지 않는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리라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한 후에
항상 바른 견해 가진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구한다.

마음은 감정으로 흐르기 쉽고
애욕의 칡넝쿨은 뻗기만 한다
이것을 지혜로써 분명히 보고
마음의 모든 뿌리 끊어 버려라

『법구경』 중에서

최고의 만족 최상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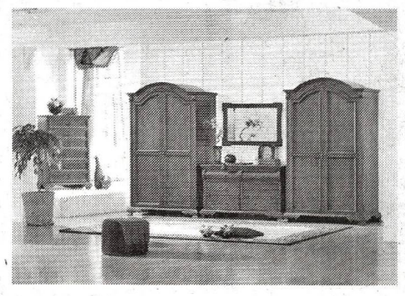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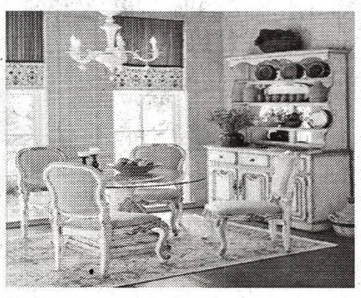


가구의 명품, 가구문화의 새로운 창조 - 라렌

라렌은 고객만족,
고객 감동, 고객 행복을 추구하며
믿음과 신뢰로 가구의 명품을
선도합니다

연락처 : 02)796-6336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지상설법

더불어 사는 사회, 일체유심조



우 승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지난 5월 24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나누는 기쁨, 깨침의 소리 100일 법문"에서 법문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3대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주시 교동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집안은 12대, 400년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지금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부자 집안이 12대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자손들이 가훈을 받들고 가훈대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가훈은 첫째, 내가 죽은 후에 만석이상 한 석도 더이상 가지지 말라. 나머지 수입은 사회에 환원하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옛말에 아흔 아홉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백 채의 집을 가지기 위해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자손들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훈을 받들어 욕심을 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둘째, 내가 죽은 후에 인물이 나더라도 진사이상 시키지 말라.

최부자는 9대로 진사만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진사는 명예직으로 원님과 같이 지내는 사이이며, 실권은 하나도 없고 그 지역에서 유지의 노릇만 하였습니다. 최부자가 자손들에게 진사이상 벼슬을 못하게 한 것은 정치와 권력은 무상한 것이라. 한 번 정치에 입문하여 권세를 가지게 되면 탐닉되어 빠져 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세의 판도에 따라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아예 높은 벼슬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부자 집안은 안분지족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400년 동안 부귀영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는 정신문명을 도외시한 채 물질문명만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청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잘되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불운이 닥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되고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잘되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 번이나 정승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애민했던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날 황희 정승의 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말 "대감 어르신 오늘 아침에 우리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오늘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혹여 소에게 부정이 탈까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될 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황희 정승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날 오후에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하는 말 "오늘 아침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도 되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황희 정승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은 "사람이 소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고, 소가 태어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황희정승에게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황희정승은 "사람은 다 마음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라. 마음속에 나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법이라."하였습니다.

황희 정승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간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 만물은 마음에서 생겨난다하여 '일체유심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에 나가 부처님께 참배하는 것, 매일 기도, 참선, 염불하는 것도 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매일 불공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맹구우목! 물속에 있던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 물위에 있던 나무의 구멍 난 옹이에 머리가 끼이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맹구우목과 같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순간적인 불장난에 의해 쉽게 태어난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비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남이 나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자기를 학대하고 비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중한 자기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열심히 불공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일 지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살님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 참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은 반병남은 참기름을 보고, 벌써 다 먹었네, 어떤 보살은 아직도 이렇게 남았네"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감인의 세계, 인욕의 세계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멀었네", 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아니 벌써 이렇게 지났나"하고 생각하면 자신의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더군다나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 수행하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소중한 나이기에 순간, 순간의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고, 부처님의 법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지으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들이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길 서원합니다.

이달의 설법문안

인생의 헛된 삶과 참된 길

우리 인간이란 본래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며 그저 막연히 생겨났으나 살 때 까지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고달픈 삶에 쫓기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각박한 현실생활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잘사는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고기 잡는 사람이나, 공장 직공, 정치인, 학자, 종교인 심지어는 석가, 공자, 예수에게 물어볼지라도 잘 살려는 마음, 즉 이 한 생각만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이면 누구나 잘 살려는 이 한마음을 가졌을 진 대 잘 살 수 있는 어떤 법칙이 필요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가? 를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한 손에 넣고 주무르는 재벌이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제왕이 되거나 또 사자후의 웅변을 토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천하의 독자를 붓 하나로 놀라게 하는 큰 문호가 된다면 이것을 일러 잘사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부귀와 명예를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뜬구름 흐르는 물로 살림을 삼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양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일러 잘사는 사람이라 할 것인가? 아니다,

이 모두가 겉치레의 잘사는 방법이 될는지는 몰라도 참된 의미에서 말하는 잘사는 방법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잘사는 것인가?

부족이 없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원망이 없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성냄이 없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공포와 불안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강제와 속박이 없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해탈과 자유가 있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보다 위없는 것이 잘사는 것이요,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잘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평생을 백 년이라 한다면 이 일평생을 흔히들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귀중한 한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얹어있고 얼굴엔 주름살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인간들이 이런 이유를 모르고 그저 먹고 자고 성생활만을 지탱해나간다면 이는 저 금수들의 생활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들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말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가령 인간이 백 년의 삶의 권리를 가지고 와서 하루 살았다는 말은 하루 죽었다는 말 이외에 또 무슨 다른 뜻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일 년을 살았다는 말은 곧 일 년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래도 죽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는 참으로 비참한 사실입니다. 또 권력, 재력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따지고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큰 구렁이한테 뒷다리를 물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운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구렁이한테 물린 개구리는 구렁이 뱃속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엔 오직 구렁이 자신이 결정할 것이지 개구리에겐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죽음도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하의 영웅과 만고의 호걸도 이 죽음 앞에선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마치 남의 일처럼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아니! 죽음이라는 구렁이 앞에 다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계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과학자, 종교가, 철학자등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 업보중생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견해도 역시 업안으로 밖에는 보지를 못함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 일체중생이 이 업안(業眼)을 해탈하여 진리의 눈(心眼)으로 세상을 보고 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눈(法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심성수양(心性修養) 곧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함으로 견성(見性)하는 일입니다. 견성이란 자기성품(바탕)의 자리, 일체만유(一切萬有)의 본성(本性)자리가 곧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 본심(本心) 자리를 맑고 청정히 가져 만사만리(萬事萬里)를 통찰할 줄 아는 지혜(慧眼)의 눈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의 육안(肉眼)으로는 아니 보이나, 이상하고 묘하게도 성품(性品)은 각자가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못보고 못 찾는 것이 묘한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성품을 보고 이 고해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범부중생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재물에 대한 욕심, 색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등 다섯 가지 즐거움을 누려보고자 하는 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탐, 진, 치 삼독과 오욕병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자기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삼독과 오욕락을 버리고 육바라밀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우리 일체중생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사바세계라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감에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약육강식(弱肉強食)하는 하나의 수라장(修羅場)이라 함이 무리가 아닌 것이니 이 현실세상은 과거 무량겁을 내려오며 서로 가지고 놓은 죄악의 업력(業力)으로 만들어진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보복(報復)의 결산장(決算場)이라, 서로가 지은바 업력과 업보로 괴로운 재난이 눈앞에 전개됨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자기 성품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품을 보라함은 나의 실체(實體), 존재성을 알라함이요, 나의 실체를 알라함은 나의 영원의 삶을 터득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 이외에 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총지법문 <기획연재>

신묘장구대다라니 (2)

▶.구로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속히 악업을 그치겠나이다. 위대한 승리자이신 관세음이시여, 항상 우리를 기억해주소서〉

구로=나쁜, 갈마 =업, 행위, 사다야 =승리자, 또는 부사로서 앞서다의 뜻. 도로=선장 수장, 미연제=승리하다, 마하미연제=크게 승리하다, 다라 =기억한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다린나례 새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예혜혜

〈옹호자이시며 자재자이신 관세음이시여,일체 번뇌로 부터 해탈하신 관세음이시여,

어서 빨리 강림하소서〉

다린나례=옹호하는 주인, 왕, 받아지니는 자[受持]. 새바라 =자재자, 마음대로 하시는 자.

자라자라 =행동하다, 동요[動搖]. 마라 =번뇌, 오물, 때[垢], 부정[不淨]. 미마라 =더러움을 없애다, 해탈자. 아마라 =더러움을 없앤자, 해탈자. 몰제 예혜혜=속히, 어서 빨리



▶.로계 새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세간의 자재자이신 관세음이시여, 탐욕의 독심을 잠재워주소서, 진심의 독심을 잠재워 주소서, 치심의 독심을 잠재워주소서〉

로계=세간, 세상. 새바라 =자재자. 라아 =욕망, 탐욕. 미사미 =독심. 나사야 =잠재우다

나베=진심. 사미사미=독심. 나사야 =잠재우다. 모하자라 =치심, 우치심, 무명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쟈못쟈 모다야 모다야

〈관세음이시여, 공포를 제거하여 주소서, 속히 제도하여 주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호로호로=공포, 두려움. 마라 =번뇌, 부정, 때[垢]. 하례 =제거하다, 없앤다. 바나마 =연꽃. 나바 =중심【바나마 나바 =연화성존《聖尊》】. 사라 =제도하다. 시리 =나아가다. 소로=펼치다, 꺼내다.흘러내리다. 못쟈 =깨달음의 성자. 모다야 =보리도, 깨달음을 뜻함.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 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싣다야 사바하

〈관세음이시여, 어여삐 여기시어 애욕을 파하도록 힘을 주소서, 성취케 하소서〉

매다리야 =어여삐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 니라간타 =관세음보살, 청경성존. 가마사 =애욕. 날사남 =파하다, 부수다, 공격, 학대. 바라 하라나야 마낙=분발케하다. 사바하 =길상, 서상. 싣다야 =성취. 사바하 =길상 있으라

▶.마하 싣다야 사바하

〈대성취존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마하 =크다. 싣다야 =성취, 달성

▶.싣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요가자재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싣다 =싣다야와 같은 뜻. 유예새바라야 =요가의 성취자

▶.니라간타야 사바하

〈청경존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니라간타야 =청경존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바하

〈동물을 제도키 위해 동물 모양을 한 관세음보살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바라하 =돼지. 목카 =모습, 형태. 싱하 =사자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연꽃을 지니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바나마 =연꽃. 하따야 =지니다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큰 바퀴를 드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자가라 =큰 수레바퀴. 욕다야 =구족하다

▶.상카섭나녜 모다나야 사바하

〈법소라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상카 =소라. 섭나녜 =소리[音] . 모다나야 =菩提[깨달음]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큰 병을 지니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마하라 =크다, 넓다, 거룩한. 구타 =병[甁]. 다라야 =지니다, 맡아 있다.

▶.바마 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오른쪽 어깨에 검은 서상을 하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바마 =오른손. 사간타 =어깨. 이사 =방향, 쪽. 시체다 =서있다, 있는[有], 가릿나 =검은색. 이나야 =깨달은 자, 여래, 승리자.

▶.먀가라잘마 이바사나야 사바하

〈호랑이 가죽 옷을 두른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먀가라 =호랑이. 잘마 =가죽,피부, 껍데기. 이바사나야 =의복, 옷.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귀의 하옵나니 관음대성존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나모=귀의, 귀명. 라다나 =보배. 다라야야 =보호자의 의미로 관세음보살님을 의미.

나막 =귀의, 나모와 같은 뜻. 알야바로기제 새바라야 =관세음

생활속의 밀교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음 속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말을 하듯이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또한 남들은 모두 행복한 것 같고 나 혼자만, 내가정만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행복을 바라며 언제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더 주면 될 것을…,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될 것을…, 내가 좀더 노력하면 될 것을…, 내가 좀더 기다리면 될 것을…, 내가 조금 움직이면 될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주기 보다는 받기를 바라고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며 노력하기 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 보다는 한 순간에 얻어 지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늘 행복하면서도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행복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내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못된 행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제 부터라도 작은 행복부터 만들어 가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인한 잠재적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늘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과 마음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라고 하는 아집과 아만, 아상입니다. 그 같은 견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최고라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판별하는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는 존재와 그 가치를 불안한 마음으로 매 번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주위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괜찮은 사람을 듣고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데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 속에는 행복의 충만감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을 그러한 '나'의 만족과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데서 온갖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가 얼마나 나를 괴롭혀 온 오래되고 큰 병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빠지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한 우리는 이 세상과 삶으로부터 분리된 체 고통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기망상과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를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삶에 있어 진정한 성취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나 자기 억압이 아니고, 잘못된 자아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행은 이러한 자각을 얻는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순간순간 꿰뚫어보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는 고집이 사라질때 고통은 엷어지고 사라지며 내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충만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족함을 못마땅해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수행자는 '나'를 버릴때 자유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삶의 본성을 알고 살아가는 단 하루가 맹목적인 욕망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천 년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내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과 불행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염주를 쥐고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읊조리는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과 행복의 충만감을 수시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수행을 통해, 진언염송을 통해서….

〈법경//통리원 교정부장/법장원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보은시

보은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보은이란 불보살과 부모, 국가,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은혜를 갚기 위해 공양 보시하는 것이 보은시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교도들이 십선보은의 생활을 체득케 하기 위하여 손수 정하셨던 종단의 실천수행법이다.

정법시나 반포법시는 법에 공양하는 것이며, 보은시는 승에 공양하는 것이므로 자성일 불공이나 월초불공 회향일, 49일 불공 회향일, 종단 4대절에 은혜 갚기를 서원하며 보은시로써 실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서원이 있어 정진 불공할 때에는 정시와 함께 보은시를 행하는 것이 좋다.

정시(定施)는 밑거름이요, 보은시는 차시(差施)로서 웃거름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새해불공과 월초불공에는 회향일을 기하여 반드시 보은시를 행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나 대소사가 있어 불공할 때에는 보은시를 행하도록 한다.

보은시는 "소원성취를 속히 이루게 한다."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이 보은시는 1973년(총기2년) 6월 27일 제1회 강공회에서 결의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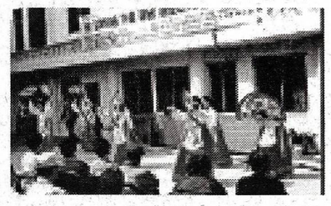
청소년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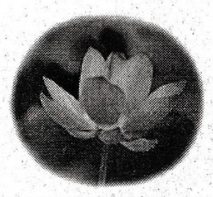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 · 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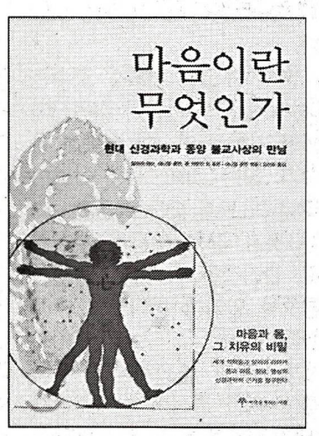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달의 추천도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 현대 신경과학과 동양 불교사상의 만남



달라이 라마,대니얼 골먼,존 카밧진 외 토론/대니얼 골먼 편/김선희 역 / 씨앗을뿌리는사람/ 정가 12,800원

이 책은 '마음과 생명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1990년 대담 내용을 담고 있다. 인류의 영적 스승 달라이 라마와 EQ의 제창자인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을 비롯한 신경과학, 생리학, 행동의학, 심리학, 철학 분야의 저명한 서양학자들이 정신과 신체,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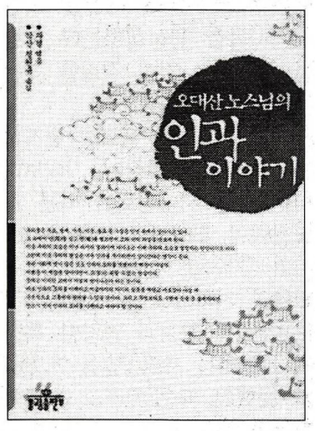
동양철학과 불교에서는 마음이 몸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도 그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서구의 최신과학이 마음과 몸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발견한 것이다.

동양철학과 불교에서는 마음이 몸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도 그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서구의 최신과학이 마음과 몸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발견한 것이다.

이 책은 '마음과 생명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1990년 대담 내용을 담고 있다. 인류의 영적 스승 달라이 라마와 EQ의 제창자인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을 비롯한 신경과학, 생리학, 행동의학, 심리학, 철학 분야의 저명한 서양학자들이 정신과 신체, 감정과 건강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인다.

그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시술과정과 결과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료법만이 아닌 인간의 정신과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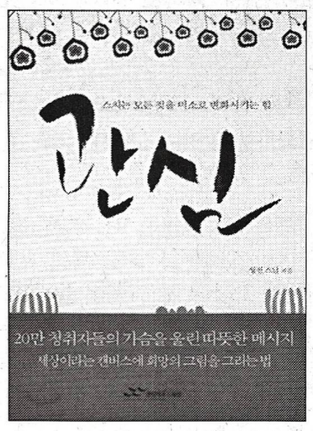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편저/각산 정원규 역 / 불광출판부 / 정가 10,000원

중국의 『현대인과실록』을 번역한 책으로 중국 오대산에 은거하고 있는 스님이 하신 법문을 정리한 책이다. 거창한 철학적 지식보다는 소박한 현실의 이야기로 고통 속의 삶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적고 있다.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만물의 원리인 인과를 이해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성품을 깨쳐갈 수 있을 것이다.

관심 : 스치는 모든 것을 미소로 변화시키는 힘



성전스님 저 / 랜덤하우스중앙 / 정가 9,500

제 2의 법정스님으로 불리는 성전스님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세상을 한권의 책으로 담았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시했던 것, 가장 쉽지만 귀찮았던 것, 참 행복으로 가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이 책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자연만물이 삶의 의미와 행복의 재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손등을 스치는 바람에서, 하늘의 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풍경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가슴 뭉클하게 이야기한다. 성전스님은 '신뢰'나 '배려'등 삶의 덕목을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를 지탱해주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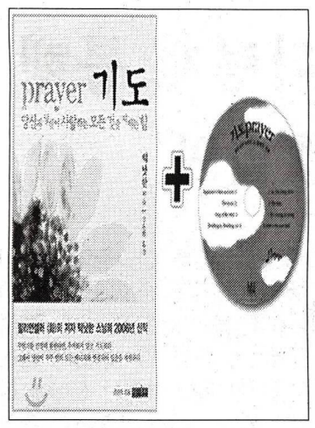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한다'는 명구가 있다. 철학자들과 지성들은 행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저자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참 행복의 원천임을 잔잔하게 설파한다. 후천적으로 획득한 이미지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함이야말로 행복의 진정한 가치이며, 마음의 풍요로움은 오감으로 전해지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스님의 시선은 누구나 똑같이 바라보는 풍경도 무릎을 '탁'하고 칠 만큼의 감동을 자아낸다. 독자들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전 스님이 전하는 특유의 시선과 만나는 행운을 맛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성전스님은 제2의 법정스님으로 불릴 정도로 은근히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스님이다. 간결하고 깨끗한 문체로 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스님은 〈중앙일보〉, 〈불교방송〉, 〈교차로〉, 〈불교신문〉등에 시사적인 칼럼과 기고를 통해 인생의 여백을 돌아보게 하는 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5부, 66편. 이전 책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스님의 시들도 아름다운 풍경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지면을 장식한다.

기도 Prayer :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틱낫한 저/김은희 역 / 명진출판 / 정가 9,000원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화선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한다. 선풍기나 냉장고, 책상 위의 작은 전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같은 원리로 실행된다. 기도를 할 때 믿음과 자비, 사랑의 에너지는 전력 구실을 한다. 그러한 전력 없이 기도를 한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행복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눈앞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는 삶으로 들어서게 한다." 깨어 있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잠언으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안겨주었던 틱낫한 스님. '기도'는 '화', '힘'에 이어 깨어 있는 삶으로 안내하는 스님의 새로운 키워드다.

'기도' 하면 떠오르는 숱한 의문들에 대해 틱낫한 스님은 가톨릭과 기독교, 불교를 넘나들며 하나씩 풀어간다. '진실한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일까, 내 기도는 신에게 전달되었을까,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 과정에서 평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한다. 기도의 의미를 성찰하며 우리 삶이 고통받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를 함께 풀어나가는 책이다.

불법은 의학이다



송담 저 / 바보새 / 정가 10,000원

옛날에 어느 대덕 스님께서 시봉자와 같이 산길을 가다가 돌무덤 서낭쪽으로 소변을 누시며 "이 서낭귀신아! 내 소변 공양이나 받아라" 하셨답니다. 그것을 본 시봉자도 큰스님 따라 자기도 할 것이라고 소변을 누니 두 다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서 걷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 방에서 내려갈 때에 애초 내 무릎이 뒤틀렸던 자리에 서서 "내 무릎을 건드린 마귀 신아! 내 가래침이나 받아 처먹고 썩 물러가라!" 하고 가래침을 탁 뱉는 순간 희한하게도 무릎이 싹 풀리면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불가에서 대선사들이 병사하는 예는 절대로 없었다. 그러한 사실들은 『지장경』의 가르침이 경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죽어있는 가르침이 아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진실의 숨결이라 할 수 있다. 그 숨결을 느끼고 호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들의 깨달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일체 중생의 본심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달의 생활요가

어깨서기 자세

인간의 내장이나 관절 등 육체적 구조는 소나 말과 같은 포유동물과 비슷하다. 그러나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서서 활동함으로써 동물에겐 없는 많은 질병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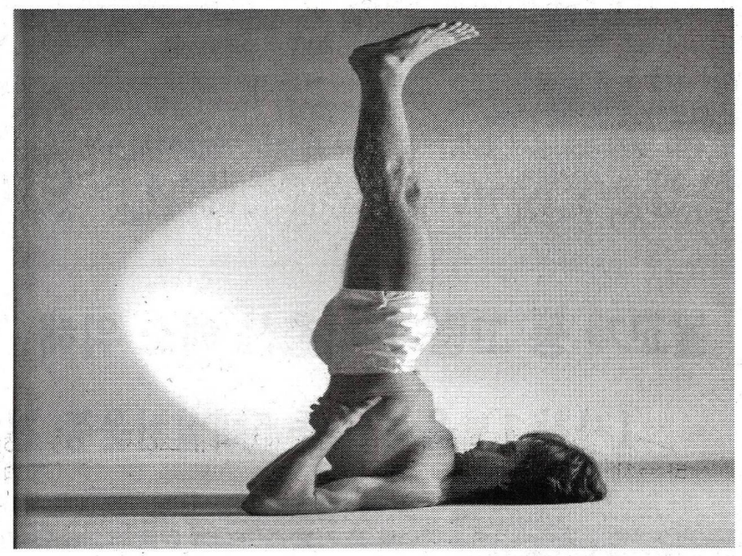
위, 자궁 등 장기들의 하수, 허리, 무릎 등의 관절 질환은 모두 두 발로 서있으므로써 생기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동물들처럼 기어서 다닐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요가 동작을 통해 위와같은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러한 자세 중의 하나가 〈물구나무서기자세〉와 더불어 이 자세이다.

요가의 수행법에는 불합리한 육체구조를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치료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회복능력인 자가치유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많다. 그러한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인체를 거꾸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요가경전에 의하면 이 자세를 매일 수행하면 주름이 없어지고 늙지 않는다고 한다. 또 매일 3시간 씩 6개월을 수행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다소 과장된 점이 있지만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는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자세임에 틀림없다.

따라하기

1. 다리를 모으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눕는다.
2.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올린다.
3. 엉덩이를 서서히 들면서 발을 머리 뒤로 약 45도로 넘긴다.
4. 팔을 구부려 허리 가까이 안정되게 받쳐준다.
5. 양손으로 몸통을 떠받치며 최대한 다리와 상체를 높이 올린다.
6. 몸통과 다리는 가능한 한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쭉 편다.
7. 턱과 가슴 윗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 3 -5 분 정도 유지한다.
8. 자세를 풀 때는 반대로 한다.



효 과

몸 안의 막힌 기혈이 뚫리며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해소에 좋다. 체내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얼굴의 잡티나 잔주름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진다. 이 자세는 온 몸에 영향을 주는 자세로 전신에 활력을 넣어주고 젊음을 소생시킨다.

몸을 거꾸로 한다는 점에서 〈물구나무서기자세〉와 비슷하지만 턱을 가슴에 밀착시킴으로 목을 눌러주어 갑상선을 자극하고 척추의 상단부와 목과 어깨의 승모근을 늘리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성장,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중요한 내분비기관으로 어깨서기 자세를 통해 호르몬 분비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 자세는 폐의 윗부분을 압박하여 호흡량을 늘려줌으로써 폐활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복식호흡까지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주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첩경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 데 일념이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

천죽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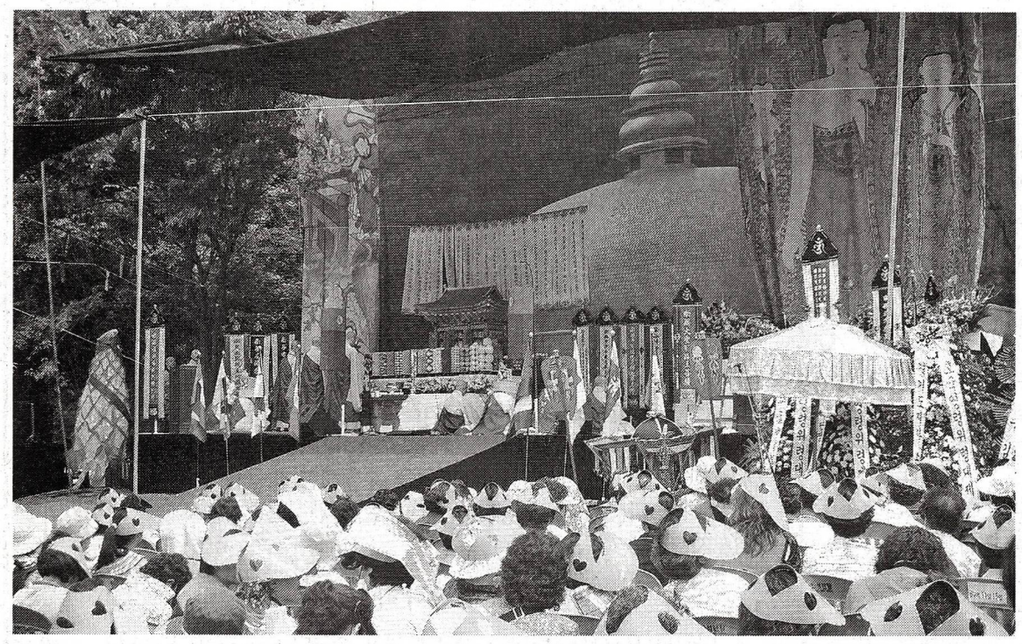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죽 54과 염주 ₩20,000

교계소식

천년고찰 원심원사, 호국 위령재 봉행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 발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극랑왕생을 발원하는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 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대재가 6월 13일 육군 5사단 포병대대 내에 위치한 원심원사(주지 세민)에서 봉행됐다.

복원 불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취지도 함께 포함된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신흥사 주지 오현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해 김규배 연천군수, 전종기 5사단장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 천도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법회에 들어갔다.

내외 귀빈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문을 연 위령법회는 탤런트 김용림 불자의 영가 극락왕생 발원문의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어 신흥사 주지 오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 있기 까지는 앞서 유명을 달리한 호국영령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장성지이자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호국불교성지인 원심원사에서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법어를 통해 "1300여년 동안 당대 수승한 고승대덕들을 배출한 전법 수행도량이자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했던 이곳 원심원사는 국태민안을 위해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중부내륙의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였다"며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이곳 보개산 산하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가들이 편안히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다.

위령재가 치러진 원심원사는 신라 진덕여왕 원년(서기 647년) 창건된 1300여년 역사의 고찰로 고려시대 거란족의 침입, 조선시대 호란과 왜란, 6.25전쟁 등 수많은 병란(兵亂)의 와중에서도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왔다.

20 세기 초까지 천불전, 해장전 등 250여 칸을 갖춘 대규모 사찰이었으나 구한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소돼 절터만 남았으며 이후 2004년 천불전(극락보전)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복원 불사가 시작됐다.

불사가 시작되면서 1955년 강원도 철원에서 새로 창건된 신(新)심원사와 구별하기 위해 사찰 명칭을 현 주지 세민 스님이 지난해 9월 부임하며 원심원사(元深源寺)로 개칭했다.

원심원사 주지 세민 스님은 "무수한 호국영령들이 산화해간 이곳에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 원심원사 복원 불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인 수목장 확장 가능성"

수목장 실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열려



◇수목장의 대중화를 알리는 고려대 교수 고 김장수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장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죽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례문화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그 가운데 유지 및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수목장(樹木葬)이 각광을 받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화장률이 급속하게 증가해오면서, 화장 이후의 대책이 시급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전국 국토 총 가용토지 4.7% 가운데 묘지면적이 무려 1%에 달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땅을 더 차지하고 산다"는 말을 더 이상 우스갯 소리로 흘려버릴수 만은 없는 판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발족한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상임공동대표 김상훈)'에서 처음으로 '수목장 실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수목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입증했다.

6월 4일에는 산림청에서 대규모 수목장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는 10군데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강원도 횡성군 청태산에서 수목장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청태산 자연휴양림 등을 둘러보며, 수목장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목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이제 묘지도 휴양림에 함께 만들어져 휴양하면서 조상도 함께 뵐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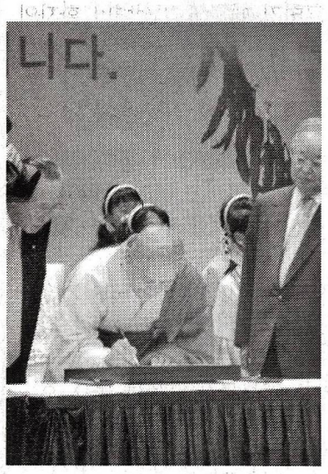
변우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수목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해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묘를 숲으로 환원시키는 것과 같은 운동을 확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수목장의 참뜻을 알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불교계에도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영천 은해사 등에서 수목장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많은 사찰들이 수목장을 검토하고 있다. 월정사, 수덕사, 백양사 등이 수목장림 조성에 적극적이다.

수목장은 불교 외 타종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중에 있다. 얼마 전 개신교는 '기독교 수목장 운동본부'를 추진하는 등 수목장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종교계의 수목장 열풍에 대해 서영완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종교계의 수목장 동참은 매우 바람직하고,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모든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수목장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등 고령화·저출산 해소 위해 '협약' 체결

1사찰 1보육시설 등 5대실천운동 전개키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시민사회 단체 등 사회 각 분야가 팔을 걷어붙였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체결식에서 불교계는 부문별 실천사항을 통해 "생명존중, 공동체 운동전개와 아울러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인연 맺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찰에 결혼상담실을 설치하며 결혼주례를 통해 자녀출산서약 및 출산장려운동을 실시한다. 도심 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시설 확충 △아동양육 지원 강화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 공동 부담 △출산과 양육 장려 △여성과 고령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여성과 고령자 고용 확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요양서비스 기반 구축 △노후생활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에서 세부계획을 마련,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은 △생명존중 공동체 운동 △아름다운 인연맺기 운동 △1사찰 1보육시설 건립 △능력개발·고용 확대 △효문화 정립 등 5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5대 실천운동은 종단 또는 사찰 단위로 낙태 반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강좌, 미혼모시설 확대, 입양 장려, 가족 교육 프로그램 실시, 문화재·생태해설사 양성, 노인시설 확충 등 22대 과제별로 전개된다.

2005 인구 센서스 살펴보니 불교인구 감소, 가톨릭 약진

외래종교에 잠식 제대로 포교 못한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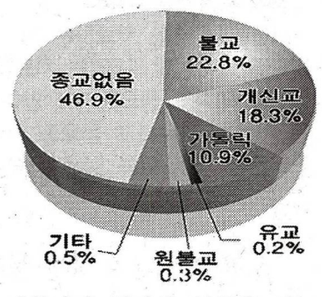
불교계가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분야 분석결과에 대해 충격에 휩싸였다.

민족종교이며, 한국종교의 주류라고 자부해왔던 불교계는 이번 조사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조사결과는 1995년과 비교해서 불교인구는 40만명이 증가했지만 국민전체 종교인구 비율에서는 23.2%에서 22.8%로 하락했다. 그 반면 가톨릭는 1995년 2백9만명에서 1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5백10만명으로 6.6%에서 10.9%로 두배 가까이 증대하는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통계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조사방법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고 조계종 문화사업단장 스님은 "한국불교는 지금 위기이다"라며 "가톨릭를 비롯한 외래종교가 현재 한국 종교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계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고 스님은 또한 "불교가 조금씩 외래종교에 잠식당하는 것은 포교가 재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오래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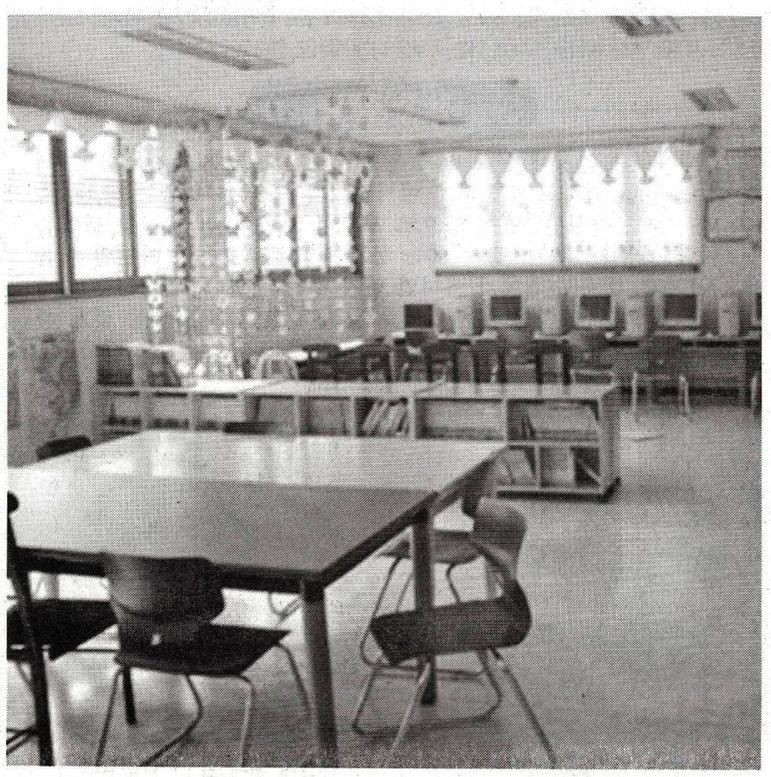
가톨릭측은 이번 인구조사결과에 대해 "교구자치제가 명확하게 확립된 가톨릭은 통·반 단위까지 본당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목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불교계 관계자는 "불교인구 비중이 기대보다 낮은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포교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역별, 연령별 불교인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역적 환경과 연령별 특징에 부합하는 포교방법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2시~3시 : 과제 및 학습
3시~4시 : 태권도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혜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교계소식

"세계 종교지도자 대회"

18개국서 종교지도자 500여명 참가



◇21세기 세계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고 기원하는 세계종교지도자들이 한국대회에 참석하여 강연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종교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6월 8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30개국 30여 명의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이홍재 집행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대회사, 이명박 서울시장의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및 각 종교의식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화합과 평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희망 즉 불멸을 향한 지속성의 희망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당연한 욕구"라며 "갈등과 화해, 전쟁과 평화, 지구촌의 위기와 안정 등 선악의 양축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미래는 다름아닌 우리 모두의 뼈아픈 자각과 책임 있고 지속적인 실천에 의해서만이 희망하는 대로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념과 민족 그리고 이해의 경계를 훤출히 넘어서서 인류공동의 대의를 위해 각성하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새인류운동을 시작하자"며 "지구촌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뜻깊은 만남의 축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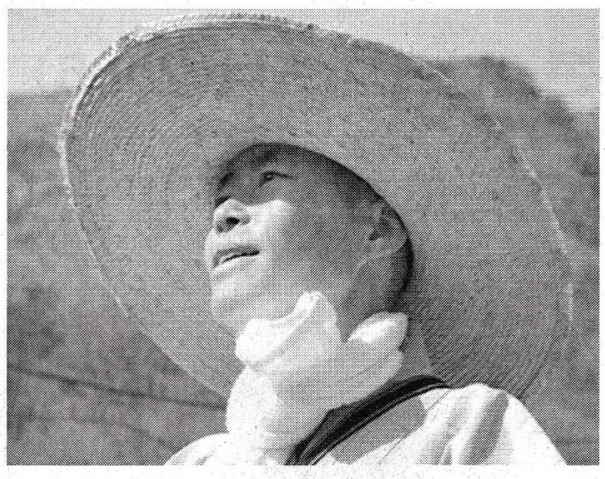
메나켐 하코헨 이스라엘 유대교 대표는 축사에서 "2006 만해 페스티벌과 세계종교지도자 대회를 통한 종교지도자의 만남은 다른 종교인들 간의 축복, 조화, 우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갈망하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하코헨 씨는 또한,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각 나라와 개인적인 긴밀한 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종교지도자 개회식은 5천여 국내외 종교의 신도들이 참석했으며,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등 이 참석했다.

지율 스님, 카페 '공간초록' 연다

천성산 사진전 등 자율프로그램 운영



◇청선산 자연환경 지킴이 지율 스님.

카페 '공간초록'. 빠르면 7월 중순경 문을 연다. 부산 교대 앞 한옥을 회원들이 직접 수리해 꾸민다. 그동안 천성산 운동을 함께 해온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터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화의 장이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여는 것이다.

천성산 터널 관통을 반대하면서 지율 스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개발 반대론이 아닌 생명의 가치였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성과 순수한 감성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스님은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람들이 천성산 운동의 실패를 얘기할 때, 오히려 이 운동의 확산을 꿈꾸며 공감과 교류의 공간을 열 생각을 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부산의 거처를 정리하고 영덕의 토굴로 들어갔던 스님은 '공간초록' 준비를 위해 다시 부산에 왔다. 아직도 단식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뜻을 함께 하는 운영위원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많은 이들이 흔쾌히 동참했고 앞으로 월 1만원의 회비를 낼 회원도 모집한다. 생명의 가치, 자연의 가치를 알려내는 공간의 주인을 찾는 셈이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이 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지만 카페의 진정한 주인은 일반 시민들이다. 앞으로 이 카페는 천성산 지키기 운동에 함께 해 왔던 사진작가, 영상전문가, 교사, 교수, 화가, 환경운동가 등 많은 이들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에게 선보이며 공간을 개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상영, 천성산 사계 사진전, 지율 스님의 운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사진에 담아온 사진작가 이희섭 선생의 사진전 등 벌써부터 알찬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공적 개념의 이 카페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언제든 찾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 도심 한가운데 마련되는 '공간초록' 카페와 함께 스님이 또 한 가지 공을 들여 준비 중인 공간이 있다. 바로 온라인상에 마련될 초록의 공명 카페(http://www.chorok.org). 천성산 홈피에서 천성산 운동 경과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천성산 유량조사단 활동과 영덕 토굴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적은 '산막일기', 스님이 직접 파괴되고 있는 국토의 현장을 가본 후 쓴 '길에서 쓰는 편지' 등으로 천성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삶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춘계학술대회 열어

"법화경의 현대적 고찰" 주제로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은 '법화경의 현대적 고찰'이란 주제로 '2006 법화경 연구 특집 춘계학술대회'를 6월 17일 서울 관문사에서 개최했다.

'〈법화경〉의 범어필사본과 현대 학계에서의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우제선 교수는 '법화경 사본 연구의 필요성과 해외 불교학자들의 법화경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논제를 이끌어 나갔다.

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법화경〉사본들을 연구해 정확한 정판본을 만들고 이에 바탕을 둔 번역과 해석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동국대 지창규 교수는 '법화현의의 오중현의 연구'란 논문을 통해 "〈법화경〉의 바른 이해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관심수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국 항주박물관 빠오쯔청 연구원의 '고려와 대각국사 의천' 동국대 오지연 강사의 '법화문구의 사종석 고찰' 등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관문사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태국 스님들, 월드컵 시청에 아침 공양도 걸러

월드컵 시청하되, 환호는 금물

'불교의 나라' 태국 전역에서 '월드컵 도박' 열풍이 부는 가운데 일부 승려들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느라 아침 공양까지 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국 일간 영자지 네이션은 21일, 북부 관광지 치앙마이주 절에서는 승려들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는 바람에 아침 공양을 빼먹곤 해 주민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승려들에게 공양할 음식을 준비해 사찰로 찾아간 한 여성은 사찰 경내에서 '주지 부재중'이라고 쓰인 쪽지를 발견하고는 할 수 없이 다른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한 후 발길을 돌렸다.

이 여성은 대다수 승려가 월드컵 경기를 빠짐없이 시청하다보니 너무 지쳐 다음 날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사찰을 막 나서려는 순간 '주지 부재중'이라는 쪽지가 붙은 거처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나오는 주지와 다른 승려들을 발견했다.

치앙마이주 승려행정위원회의 완롭 남웡프럼 위원은 승려들의 축구경기 시청이 계율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TV 시청으로 아침 공양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는 계율 위배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축구 경기 결과를 놓고 도박을 벌일 경우 이는 중대한 계율 위배 행위에 해당된다고 그는 말했다.

태국 종무당국은 승려들이 독일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는 있지만 품위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앞서 경고한 바 있다.

정보 다이제스트

▶안쓰는 매니큐어 활용방법

가죽 벨트의 구멍에 발라보세요.

가죽벨트의 구멍이 찢어져 못쓸 때 구멍에 투명 매니큐어를 칠해주면 벨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찢어지기 전 구멍 안쪽에 미리 매니큐어를 발라두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도금된 액세서리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둔다.

귀고리,반지,벨트,버클 같은 도금한 금속에 색깔없는 투명한 매니큐어를 두어 번 칠해 주면 보호막이 생겨 색이 벗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또 큐빅 장식이 있는 액세서리에 투명 매니큐어를 덧발라주면 큐빅이 쉽게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헌 스타킹 재활용하기

① 스타킹에 스펀지를 채워 넣으면 행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머리빗는 브러시에 끼워 놓으면 나중에 머리칼을 제거할 때 편리하다. 브러시에서 스타킹 조각만 떼어내면 머리칼까지 빠지기 때문이다.

③ 오래 써서 잘게 부서진 빨래비눗조각을 넣고 사용하면 비누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④ 옷을 개어서 보관할 때 접힌 자리에 못쓰는 스타킹을 끼워두면 접힌 자국이 나지 않는다.

⑤ 많이 모아서 쿠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변비, 잘못된 상식 뒤집기

장 청소를 하면 변비를 고칠수 있다?

장 청소는 장을 확실하게 비운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만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변비 환자의 경우 장 청소로 장에 고인 묵은 변을 먼저 빼준 다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장 청소로 변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비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장 세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 세척 후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 세척은 장에 고인 묵은 변을 빼준다는 의미 밖에 없으며 변이 다시 장에 찰 때까지 1주일 정도 장이 편안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초실버의원



양재동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여 가락신경정신과의원에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인 서초실버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 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 료 시 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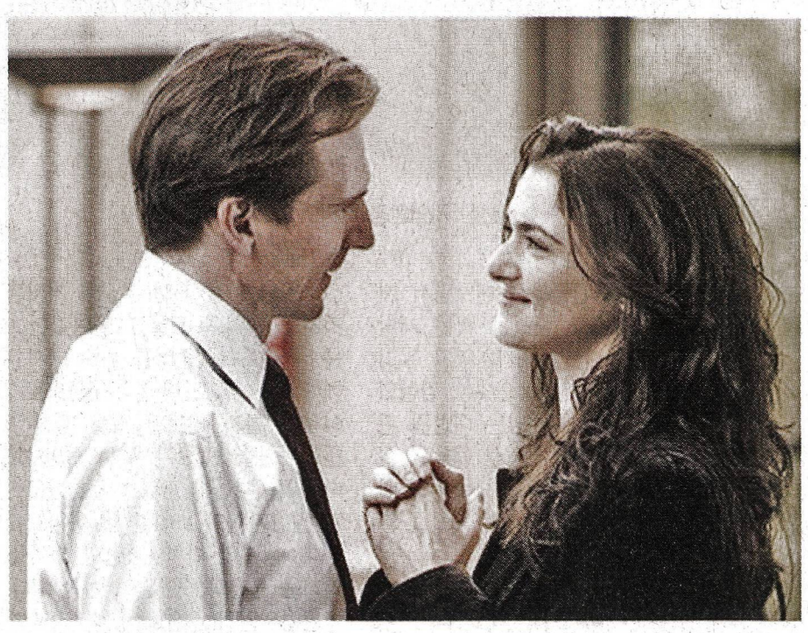


백지순/총지사 교도

7)콘스탄트 가드너(2005)

믿음, 그 확고한 사랑의 근거

그녀는 나에게 집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바로 여기 왔잖아.



당신이 왜 죽어야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인권운동가 테사(레이첼 와이즈)와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외교관 저스틴(랄프 파인즈)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케냐 주재 영국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저스틴과 함께 하기 위해 테사는 결혼을 결심하고, 그곳에서 둘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거대 제약회사 쓰리비의 음모를 파헤치려는 테사



와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스틴은 충돌하고, 테사의 유산으로 그들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그러던 어느날 UN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동료와 함께 로키로 떠났던 아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대사관은 테사가 여행 도중 강도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으려 한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괴로워하던 저스틴은 배후에 음모가 있음을 직감하고 아내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의 단서들을 찾아간다.

이제 그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파헤치게 될까?

모든 사건의 열쇠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 숨겨왔던 부인은 까맣게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둘러싼 온갖 루머와 스캔들이 난무한 가운데, 혼자 남겨진 남자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어쩌면 끝이 보이는 남자의 힘겨운 여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세상을 향한 분노도, 대상이 없는 복수심도 아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 부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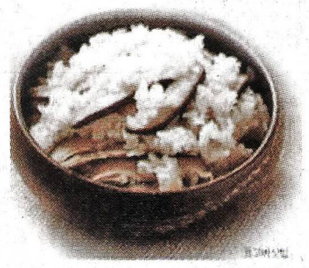
절박한 순간의 절박한 감정에 대해 여과 없이 하지만 과장 없이, 하지만 가슴 아프게 그리고 있는 영화. 주연 배우들의 열연, 아프리카의 실정을 제법 객관적으로 담아낸 영상, 그리고 멜로, 스릴러, 그리고 약간의 액션까지 넘나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구성까지... 영화를 보고 난 후 아프리카의 현실이나 주인공의 사랑 덕분에 답답해지는 가슴 아픔을 제외하고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영화다.

추 천 사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남편의 여정을 그린 멜로 스릴러. 감정이 잘 살아있는 스릴러 영화를 보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

이달의 사찰음식 ⑦

▶표고버섯밥



재료

표고버섯15장, 멥쌀 3컵, 물 4컵, 진간장 5큰술,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깨소금 2큰술, 참기름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기둥을 떼고 굵게 채썰어 둔다.

② 쌀은 밥 짓기 30분 전에 씻어 충분히 불린 후에 물기를 뺀다.

③ 쌀과 표고버섯을 섞어 솥에 안치고 밥물을 부어 끓인다.

④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채썰어 놓은 호박을 위에 얹고 뜸을 들인 후 이 아래로 잘 섞어 준다.

⑤ 홍고추, 풋고추는 씨를 빼고 굵게 다져서 진간장,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느타리버섯구이



재료

느타리버섯 200g, 진간장 2큰술, 조청 1작은술, 고춧가루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고추장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생느타리버섯은 회색빛이 나고 굵고 통통한 것으로 선택한다.

② 느타리버섯은 꼬리 부분을 손질한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수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짠다.

③ 물기가 제거된 느타리버섯은 반으로 포를 뜬다.

④ 간장, 고추장, 깨소금, 참기름, 조청으로 양념하여 혼합한 다음 준비한 느타리버섯을 손으로 주물러서 양념이 배도록 한다.

⑤ 양념된 버섯을 팬이나 석쇠에 노릇노릇 구워낸다.

▶두부장떡



재 료

두부 1모, 된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밀가루 3큰술, 표고버섯 30g, 깨소금 1큰술, 들깨가루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두부는 깨끗한 보자기에 놓고 물기를 꼭 짜서 으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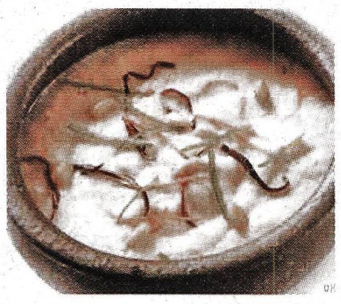
② 으깬 두부에 된장과 고추장도 함께 섞어 저으면서 체에 내린다.

③ 표고버섯을 곱게 다져서 팬에 볶아 식힌 다음 ②와 함께 섞고 밀가루를 넣어서 오래 치댄 후 직경 2.5Cm 정도로 둥글 납작하게 빚어 놓는다.

④ 팬을 달구어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③을 노릇노릇하게 지져낸다.

※고추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타기 쉬우므로 약한 불에서 지져낸다.

▶마찜



재료

마 200g, 표고버섯 2장, 홍고추 ½개, 풋고추 ½개, 잣 5개, 소금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마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간 다음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② 다홍고추와 풋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채로 썰어 둔다.

③ 그릇에 ①의 양념된 마를 넣고 ②의 고명과 잣을 넣고 찜통에다 중탕으로 찐다.

※마 껍질을 벗긴 후 손이 가려우면 따뜻한 소금물에 씻으면 된다.

※마는 밀가루와 함께 요리하면 소화가 더디다.

아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

풍(豊) 원(元)

어린 시절 어머님의 옛 맛과 정성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곳

FOOD 전문점

풍원(豊元)

아구찜·탕
간장게장
꽃게찜·탕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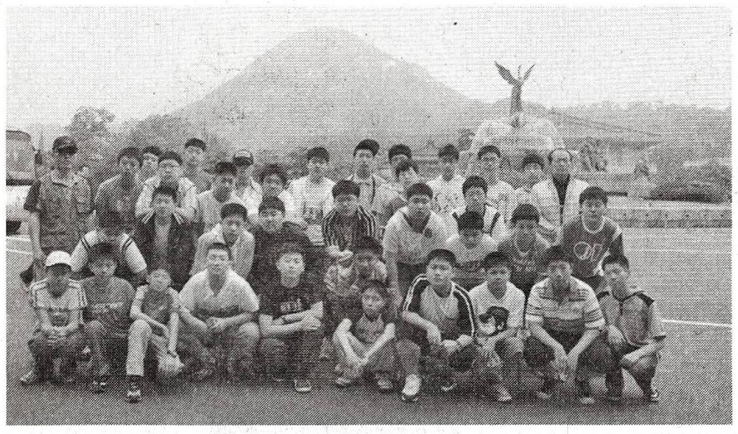
진정한 웰빙이란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꾸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평소에
좀더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식생활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실천의 한 방법입니다.

풍원은 진정한 웰빙문화의 식생활을 창조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 방이역 부근
전 화 : 02-3401-5919
대표자 : 총지사 한상옥 보살

"즐거운 젊음의 나래를 펴고"

동해중 2학년 2박3일간 수학여행 다녀와



수학여행에 참가한 동해중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기억을 남기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2학년 286명이 즐거운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수학여행은 첫째 날 부산 사직운동장 야구장을 출발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 국립묘지 참배, 한국의 문화와 유물, 전통의 얼이 담겨있는 중앙 박물관, 한국전쟁 후 전쟁의 참혹상과 각종 전쟁 무기들이 전시된 전쟁 기념관을 견학하였다.

둘째 날은 서울의 중심가이며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가장 규모가 큰 남대문시장과 서울 중심을 가르는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 한국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를 견학하고, 신비한 체험과 탐험, 인공으로 만들어진 신기한 모험의 나라 롯데월드에서 각종 놀이기구를 타며 동심의 하루를 보냈다.

셋째 날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민가와 생활풍습, 전통과 삶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한국 민속촌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생성되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진 화폐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수행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은 "2박3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견학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급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의 우정을 키우고, 젊은 시절 한 때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동해중 영·호남 학생 교류"

자매 결연학교 광주 봉선중 방문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는 지난 5월 영·호남 학생교류와 상호 우애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1박 2일 동안 광주에 위치한 봉선중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의 우의를 다졌다.

같은 한국 땅이지만 지역간의 정서와 말투, 생활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학교 학생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타행의 정신함양과 상대방의 풍습을 체득함으로써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광주 봉선중학교를 방문한 30여명의 동해중학교 학생들은 봉선중학교 교장 선생과 교사들,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정문을 들어섰고, 교실 복도에서 상호 학생들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봉선중 자매결연 학생의 집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광주지방의 식생활과 풍습을 체험하였으며, 광주지역 유명명소를 방문하는 문화탐방을 하였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5. 18 기념관을 참배하였다.

또한 동해중학교 학생들과 봉선중학교 학생들은 광주에 위치한 총지종 법황사를 방문하여 법황사 주교인 법수원 스승의 주옥같은 부처님 진리와 진정하고 올바른 삶의 지표에 관한 설법을 들었다.



자매결연 학교인 광주 봉선중학교를 방문한 동해중과 봉선중 학생들이 광주 법황사를 방문하고 있다.

이 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부산과 다른 광주지역의 문화풍습을 배우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큰 보람이 있었으며, 봉선중 학생과 부모의 친절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되어 많은 학생들이 우호교류에 참가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봉선중학교 학생들은 오는 9월경 동해중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나도 한마디

"호박꽃이 된 목련꽃"

15년 전 장미가 화려하게 핀 오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큰 아이가 5살 되던 해였다. 다음해 봄날 앞집 연립 담장너머에 하얀 목련꽃이 화사하게 피었다. 날씨가 따뜻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잠시 외출을 하면서 난 큰 아이에게 "저 꽃이 무슨 꽃인 줄 아니?"하고 물었다.

아이는 "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여 내심 기특한 마음까지 생겼다. 그러면 "무슨 꽃이지?"하고 물었더니 큰 아이가 대답하기를 "호박꽃이요" 뜻밖의 대답에 나는 황당했다. "왜 호박꽃이야?"라고 다시 물었다. 아이는 "지난번에 호박꽃이 피었잖아요"하는 것이다.

그랬다. 지난 가을에 분명 목련 나무에는 호박꽃이 피었고, 호박이 주렁 주렁 달렸다.

우리가 지난 봄 이쪽으로 이사 올 때는 목련꽃이 이미 지고 잎만 무성한 목련나무를 보았고 앞집 아주머니가 나무 밑에 호박을 심어 놓은 것을 몰랐기에 나무에 달린 호박을 보았다.

어찌 보면 큰 아이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과 무심한 줄만 알았던 아이의 관찰력에 기특함을 느꼈다. 아이에게 대충 목련꽃임을 그리고 호박을 심어 호박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호박이 열렸음을 설명해 주었다.

어린 아이들이란 그냥 보고 느낀 것이 전부인 것 같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순수하고 상상력과 관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련꽃도 호박꽃으로 변할 수 있음을 어른들은 알 수 있을까?

〈최해선/총지종보 편집위원〉

신행체험 31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발전 발원

부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삶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발전을 위해 노력할 터



노진숙 보살
〈시법사 교도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장〉

처음 총지종과 인연이 된 것은 서울 돈암동에 살 때 밀인사에 "이연수" 보살님의 권유로 법장화 전수님께서 계셨던 밀인사에 입교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희심에 저 혼자만 이렇듯 좋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세월이 갈수록 어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제 자신이 부처님의 법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을 때 '아니오'라는 대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이 생활하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도 '과연 나의 신행기를 남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듭니다.

저는 총지종 법을 만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처님 전에 나가 불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공하다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왠지 모르게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바쁘게 생활하니?'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매일 매일 정해놓은 불공을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바쁘게 이리 저리 다니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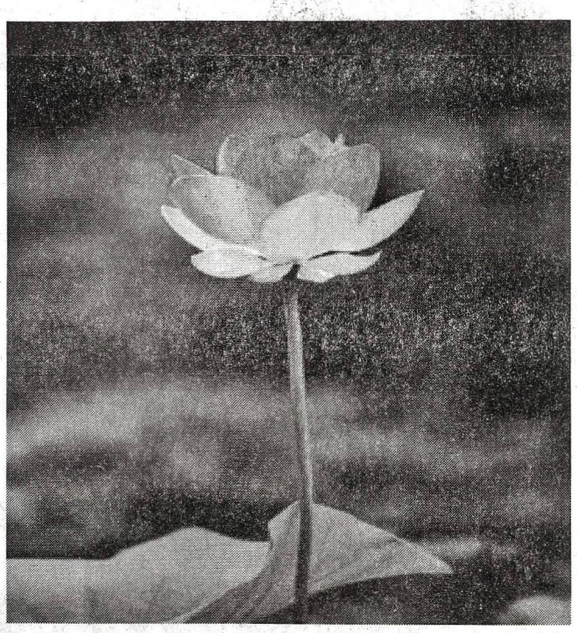
바쁘게 생활하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의 친구들은 한가하게 여행을 다니곤 하지만 어쩔 때는 그러한 것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부처님과 생활하는 것이 더 행복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부족한 제가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장을 맡아서 합창단 단장으로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 어떻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원당에서 앉은 채로 합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서 갖추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보살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추우나 더우나 거르지 않고 참석해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가를 부르는 우리 경인교구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더욱더 우리 합창단이 향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인교구 합창단은 각기 다른 사원에서 모인 보살님들이지만 한주만·안봐도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것이 정말 깊은 인연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합창단은 종단 합창단이기에 각 사원에 스승님들의 격려와 후원이 없으면 어렵고 보살님들의 참여가 없으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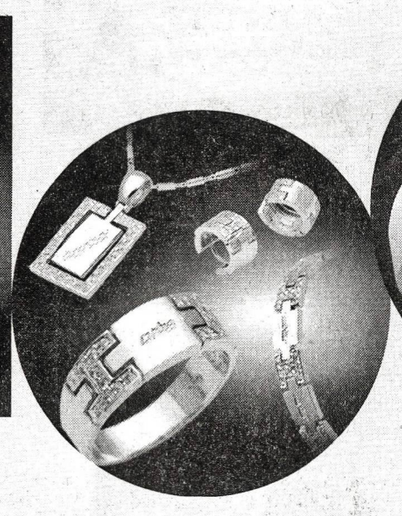
저희 합창단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보살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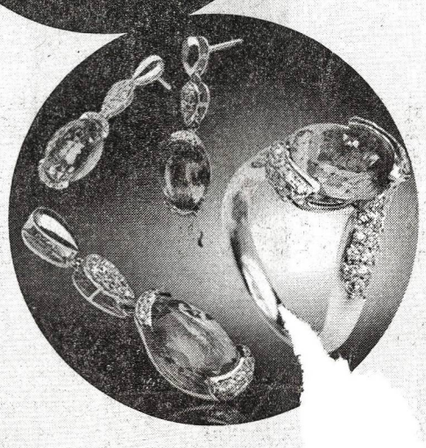
각종 귀금속 전문 도소매 천 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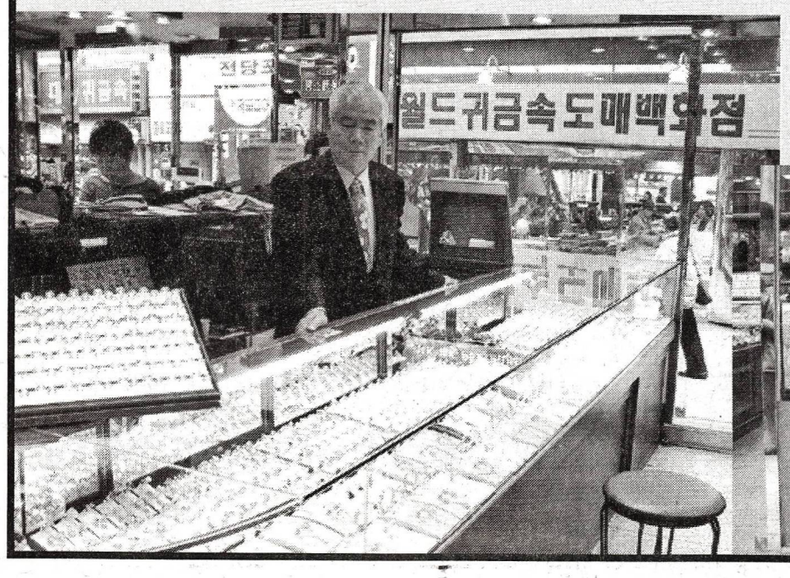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금사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총지종 교도 및 불자들에 한 해서 최상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교포교와 총지종 중흥불사에
희사하겠습니다.













천 금 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159-3
대표이사 : 권경봉
전 화 : 02-743-7204
H. P : 011-771-7204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종로3가 역 11번 출구
종묘공원쪽 첫번째 골목
삼보귀금속센터 내

정통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 삼밀수행의 도량

한국 정통밀교 종단-불교총지종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지종보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